

간대방카 소식지

Why not Chang the World?

한동대와 포스텍 연합봉사캠프
함께하는 기쁨, 커져가는 행복

한동소식

한동에서 배운 지혜, 한동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어 감사해요!

한동인

우즈베키스탄 친구,
데이브론의 한동대학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3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prospers. -Psalm 1:3



한동소식

- 한동에서 배운 지혜, 한동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어 감사해요! 06
-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09
- 해변에서의 세례식, 그 감동의 순간 11
- 고난 주관을 묵상하며.. 13
- 한동의 미디어금식
-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독교란 무엇일까? 16
-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18
- 한동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20
- 말씀으로 하나된 한동 영어 성경필사 22
- 하나님을 홍보하는 나누미, 24
- 여름방학 고등학교 홍보투어

한동인

- 30 우즈베키스탄 친구, 데이브론의 한동대학교
- 32 외국인 학생들의 리셉션리스트!
박애라 사모를 만나다
- 34 탈북의 아픔을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고 싶어요
- 36 한동의 아름다운 모습들

Why not Change the World?

- 40 한동대와 포스텍 연합봉사캠프 함께하는 기쁨, 커져가는 행복
- 43 봉사, 예수님을 닮아 삶에서 공활을 행하는 것
- 46 아이티를 기억하며 '기적의 100원 프로젝트'
- 48 차상위계층과 '손을 잡고' 정신장애인을 위해 '손을 펴고'
- 50 한동의 따뜻함이 용범이에게 전해지길..

새로운 한동가족을 소개합니다.

후원가입 안내



649.5.5



한동에서 배운 지혜, 한동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어 감사해요!

2010년 봄학기, 한동대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한동대학교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한동대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동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빠질 수 없다. 그래서 프로덕션(제작)에 외주를 맡기지 않고 연출과 촬영, 편집, 구성 등 모든 제작과정을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도맡아 하게 되었다. 제작진들은 이번 홍보영상을 타대학들의 홍보영상과는 다른, 참신한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최영환(99, 언론정보문화학부 졸업) 동문이 감독을 맡았고, 같은 학부 소속인 조창엽(02), 차세환(02) 동문이 촬영과 편집을 맡았다. 게다가 이영원(00, 산업디자인학부 졸업) 동문도



함세해 컴퓨터그래픽 작업으로 생동감 있는 영상을 완성시켰으며, 김지수(03, 국제어문학부) 학생이 영상 속 음악을 직접 작곡하여 담아 내었다. 그 밖에도 많은 한동 학생들이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탰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한동 학생들의 손길로만 만들어진 것이다.

“저희들 모두가 한동을 경험해봤잖아요? 한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니 외부인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을 잡아내고 섬세하게 그려낼 수 있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해도 촬영 대상에 대한 애정 없이 의무감으로만 촬영을 한다면 한동을 진실로 담아내지 못하겠죠.”

총 15분 가량 되는 홍보영상의 시작은 10학번들의 오리엔테이션 ‘HanST’ (한스트)의 명예서약식 장면부터이다. 이를 위해, 제작진 선배들의 부탁을 받은 성가대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거르면서까지 선언문을 읽는 많은 신입생

들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였다.

홍보영상은 학년별, 그리고 학부별로 나눠서 진행된다. 또한 성우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보편적인 홍보영상과는 달리, 한동홍보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그런지 진솔함이 더욱 묻어나는 듯하다.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들처럼 역사가 오래되었다거나 자랑할 수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동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교육과 사람’이었어요. 신입생이 한동에 입학한 순간부터 졸업하는 순간까지, 어떤 교육을 통해 한동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한 눈에 보



여드릴 수 있길 원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지만 유능하고, 동시에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글로벌 인재’. 이것이 바로 한동이 원하는 인재상이다. 한동인을 정확히 표현한 이 인재상을 영상에 나타내기 위해 이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제작에 임했다.

“5 ~ 6년 만에 다시 찾은 학교여서 그런지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학생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집에 온 듯한 푸근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과 세대차이가 조금 느껴져서 슬프기는 했지만 평소에 일해보고 싶었던 선후배들과 함께 하였기에 좋았고, 오히려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창의력과 노가다 정신’ 이 이렇게 학교를 위해 쓰이니 보람 있네요.”

한동을 사랑하는 선후배가 함께한 한동홍보영상은 멋지게 완성되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한동인들의 한동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이들이 한동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기를, 더 나아가 보다 높은 비상이 한동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새롭게 제작된 한동홍보영상은 Youtube에서 “2010 handong”으로 검색하시거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ihandong”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일생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몸과 마음의 순결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학생회관에서 29회 순결서약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55명의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자신의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했습니다. 순결서약식은 한동대학교가 개교한 첫해부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순결서약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선민 학생은 “(순결서약식은)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고 나아가 한동이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약식이 시작되고 목사님의 설교와 축도가 있을 후 서약자와 대부모들이 차례로 앞에 나와 서약서를 낭독했습니다. 서약자와 대부모는 순결서약서를 읽고 서로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대부모는 축도를 드리고 서약자를 격려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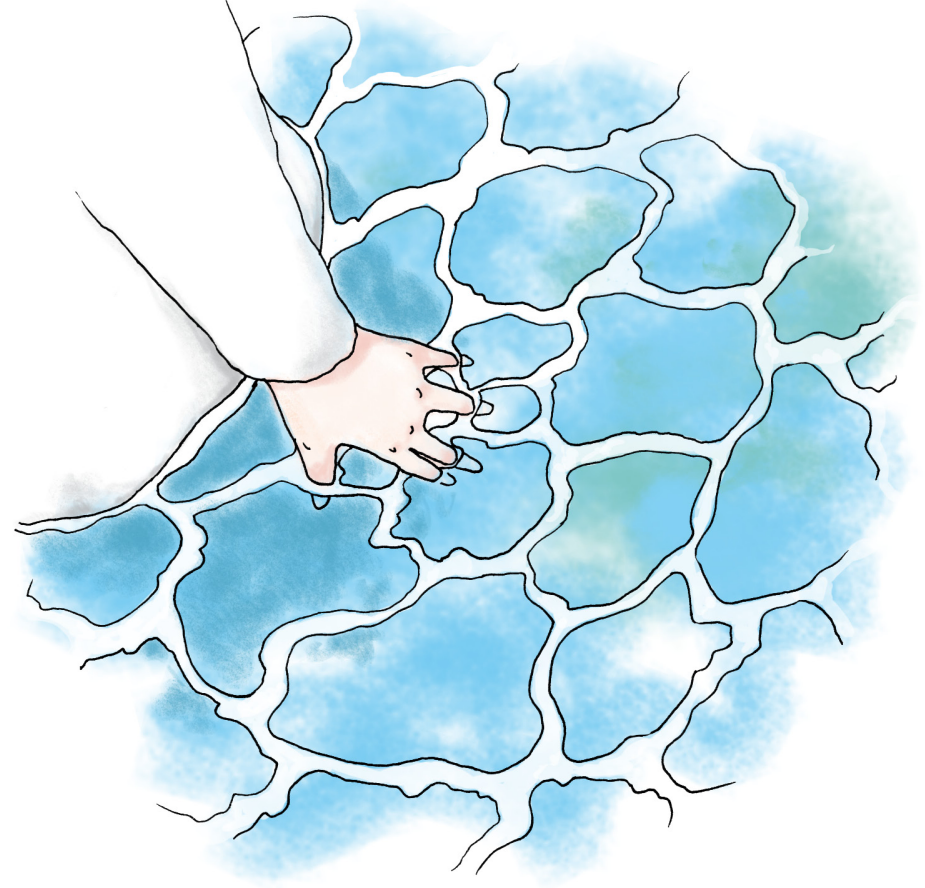
**“중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눅 1:75)**

순결은 평생토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들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9:27)**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자기 절제와 경건 훈련인 동시에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 하길 원하시어 그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순결서약식 교육을 맡은 전명희 교수님은 “영적 순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는 성적인 순결이 포함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순결서약식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이성과의 사랑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닌 신뢰와 존중의 관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해변에서의 세례식, 그 감동의 순간

한 청년이 모래사장 위에 서서 바다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백여 명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발을 덮으며 밀려오는 바닷물이 여간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긴장과 환희가 교차하는 가운데 청년은 침 한 번 꿀꺽 삼키더니 이내 성큼성큼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피서하기에는 이른 6월 초, 칠포 바닷가에 백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매년 이맘때 한동대학교회가 신청 학생들에 한하여 칠포 바닷



가에서 거행하는 침례식에 참석코자 함이었습니다. 올해는 신청한 18명의 학생에게 세례가 행해졌습니다. 기말고사가 바로 코앞에 닥친 14주차 주일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세례 받는 이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동행하였습니다. 세례 전 모래사장에 천막을 치고 모두가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내 기도와 찬송 소리가 파도를 타고 멀리 퍼져 나갑니다.

이윽고 기다리던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세례자의 이름이 호명되고 한 명씩 물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물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목사님이 청년의 어깨를 잡고 기도하여 주십니다. 기도가 끝나면 청년은 코를 찡긋 쥐고 눈을 질끈 감고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 순간,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동행자들은 그의 고백의 실천에 더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칠포 바닷가는 이내 기쁨과 감동, 웃음과 눈물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세례식을 진행한 황영호 목사님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다 같이 축하하고 은혜 받는 하루가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며 이날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동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부터 이제 사회로 나갈 졸업생까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나이와 이유는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한동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걸어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묵상하며.. 한동의 미디어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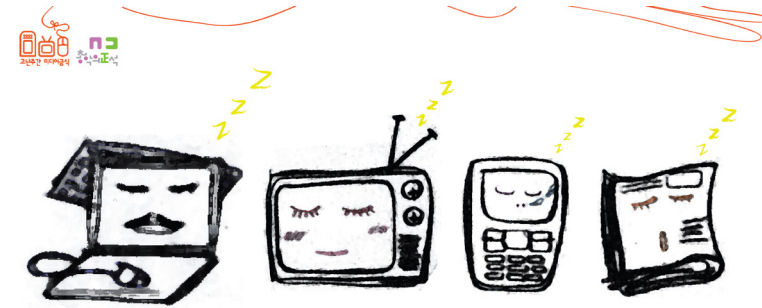
제15대 총학생회인 '총학의 正(정)석'은 고난주간이었던 2010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팻머스 문화선교회 의 사역 중 하나인 '미디어 금식'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미디어금식'이란 N세대들이 '밥(음식)'보다 더 즐겨 찾는 미디어(게임, 채팅, 만화, TV, 잡지 등)사용을 스스로 절제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을 묵상케 하는 N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 금식을 말한다. 이 캠페인에는 총 14명의 목사가 추천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한동대학교는 학생의 대부분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컴퓨터와의 접촉이 많다. 그러하기에 고난주간만큼 컴퓨터 등 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하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항목

들을 정하고, 이를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서약서를 받는다. 여기까지가 총학생회의 역할이다. 그 이후 그 항목들을 지켜 나가는 것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약속인 것이다.

미디어금식에 대한 첫인상은 획기적이었습니다. 주로 한 끼의 식사를 굶는 것만을 금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내게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것을 중단하는 것 역시 금식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의 전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형식적인 금식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금식을 하고 싶었고, 그 바램은 미디어 금식의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고난주간이 시험기간과 겹쳐서 조금은 쉬울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금식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또 한 요즘 사람들이 미디어에 얼마나 얽매어 살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하루에 한 번씩은 컴퓨터를 켜기 마련이니, 어쩌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앞섰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각심이 일었습니다.

미디어를 금식하는 시간은 꽤나 길었습니다. 그 덕에 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났고 이 시간들이 늘어날수록 미디어가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의미 없이 흘러 보낸 지난 시간들을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묵상과 기도로 채웠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는 모든 것이 미디어로 연결되어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행해졌던 미디어금식이었지만 '제상과의 단절'이라는 부작용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보화시대에서 미디어와 단절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반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미디어 금식은 현 시대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하늘 08,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3월 28일 ~ 4월 2일 지금은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 중입니다

미디어 금식이란? 밥(음식) 보다 N세대들이 즐기는 미디어(게임, 채팅, 개인용PC, TV, 잡지 등) 사용을 스스로 정제하도록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과 사랑을 묵상케 하는 문화적 금식을 말합니다.

인터넷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와의 단절은 생각보다 타격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금식하기로 한 한동인들의 결심은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고 또한 아름다웠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일 부분으로부터 벗어나 우상을 경계하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독교란 무엇일까?

한동대학교에는 기독교인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비기독교인 친구들도 있다. 또한 기독교인 중에서도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도 더러 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인 학생들은 물론 믿지 않는 학생들도 하나님의 대학인 한동대학교에 들어온 이상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동대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기초훈련인 한동코너스톤을 진행하고 있다.

한동코너스톤(Handong Cornerstone Course, 이하 HCC)이란 한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기본과정이다. 매주 화요일, 학생들은 목사님의 강의와 각 학생 리더 및 담당 교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8주 동안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난다. 강의는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비기독교인을 대

상으로 하는 HCC1은 기본적인 기독교에 대한 이해 전달과 기독교 대학에서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HCC2는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도전의식을 심어준다.

각 소그룹마다 담임 교수님과 선배인 학생 리더 및 도우미가 있다. 각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며 가지게 된 질문들에 대한 토론과 생각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학생 리더 및 도우미는 소그룹 시간을 인도하며, 적절한 중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HCC는 한동대학교의 신입생들이라면 대부분 거쳐 가는 과정으로써 올해까지 HCC 1은 373명의 학생이, HCC 2는 2,381명의 학생들이 신청하고 참여하였다. 한동대학교 교목실은 HCC를 하나님께서 한동대학교에 새롭게 복 주시려고 일으킨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믿음으로 매 년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 HCC를 통해서 새내기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뿌리가 깊어지며, 이를 통해 한동대학교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지난 5월 23일~30일, “천국복음 온 세상 위에” 라는 주제로 Mission Festival(미션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는 선교에 관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 한동인들이 선교에 대하여 빠르게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기획되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이번 축제는 여러 행사로 진행되었다. 먼저 23일, 주일 저녁 예배(김요한 선교사)를 시작으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정민영 선교사의 말씀 부흥회가 있었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각각 “한동 전문인 선교포럼 대학생들과 선교적 사명”, “한민족 IT 포럼 북한의 과학기술 / IT 현황과 선교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30일, 주일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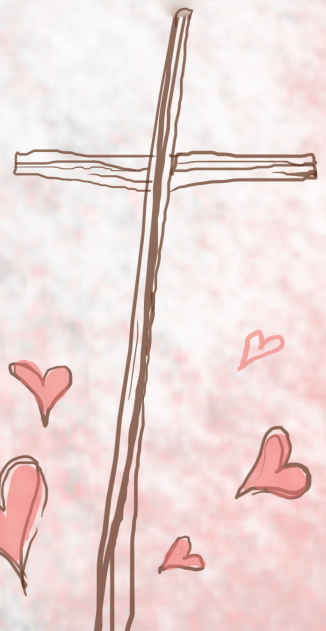
녁 예배(선교대회, 한철호 선교사)로 일주일간의 미션 페스티벌은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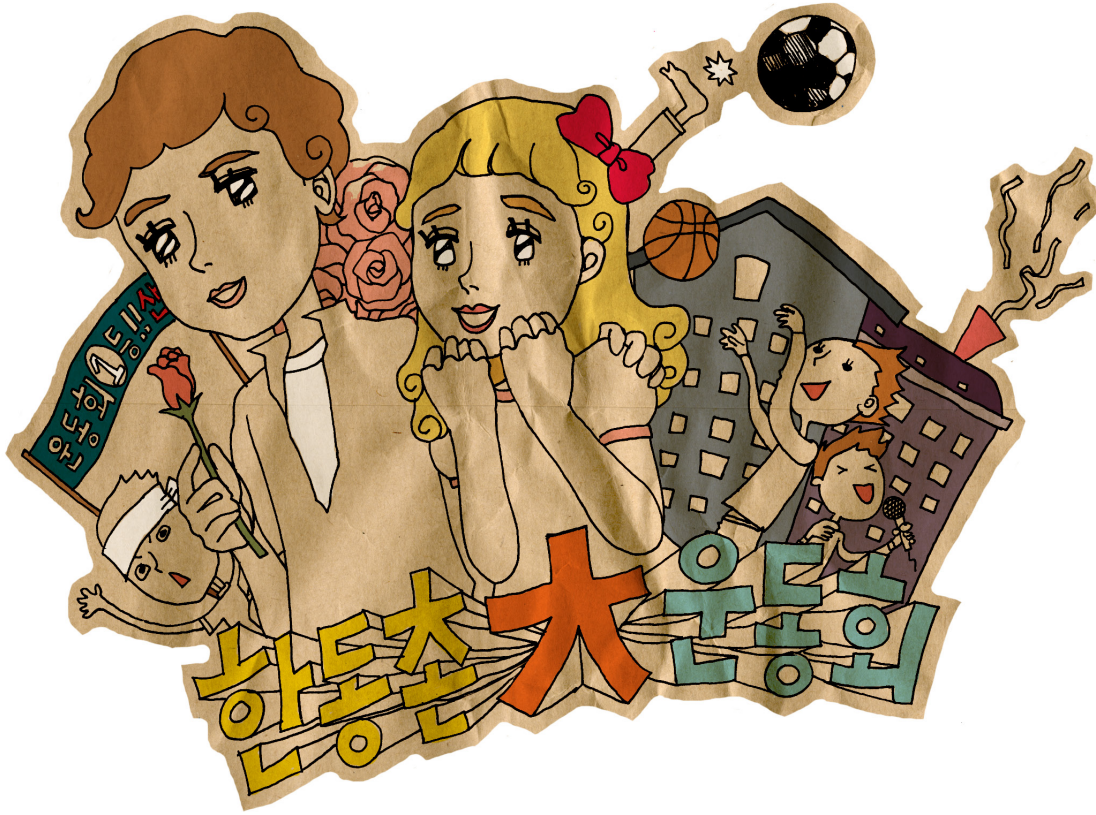
이 기간 동안 학생식당 앞에는 선교 공동체들을 소개하는 천막들이 설치되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한동대학교 내에 있는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한동대학교 외부 단체인 두란노 선교회, GBT 선교회, 선교한국, GMP 선교회, YWAM “물을 찾아서” 팀, 네비케이트, 소수민족세계연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동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되었다.

1. 선교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35.6%)
2. 선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54.2%)
3. 전문인선교사로서 직업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선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46.9%)
4. 선교는 한동대학교 학생으로서 지향해야 할 한동 비전의 일부입니다. (45.6%)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선교’는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동무의 이야기이며, 스스로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대하에서 쌓은 지식과 열정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인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사도행전 24:16)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동대학교가 소망하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총체적 이미지인 것이다. 이번 미션 페스티벌을 통해 한동인들이 가진 선교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멋진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길 소망해 본다.





한동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가을 운동회를 기억하시나요?”

2010년 봄학기 축제는 행복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한동초 대 운동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 자치회, 학부협력회, 총동아리연합회가 연합하여 5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남학우와 여학우의 기숙사를 서로 공개하고, 초대하는 한동대학교의 전통행사인 “Open House(오픈 하우스)”와 학부대향으로 펼쳐지는 “학부체육대회”, 각 동아리들이 한 학기 동안 갖고 닦은 재능을 발휘하는 “동아리연합공연”, 한동대학교 밖 이웃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는 “사랑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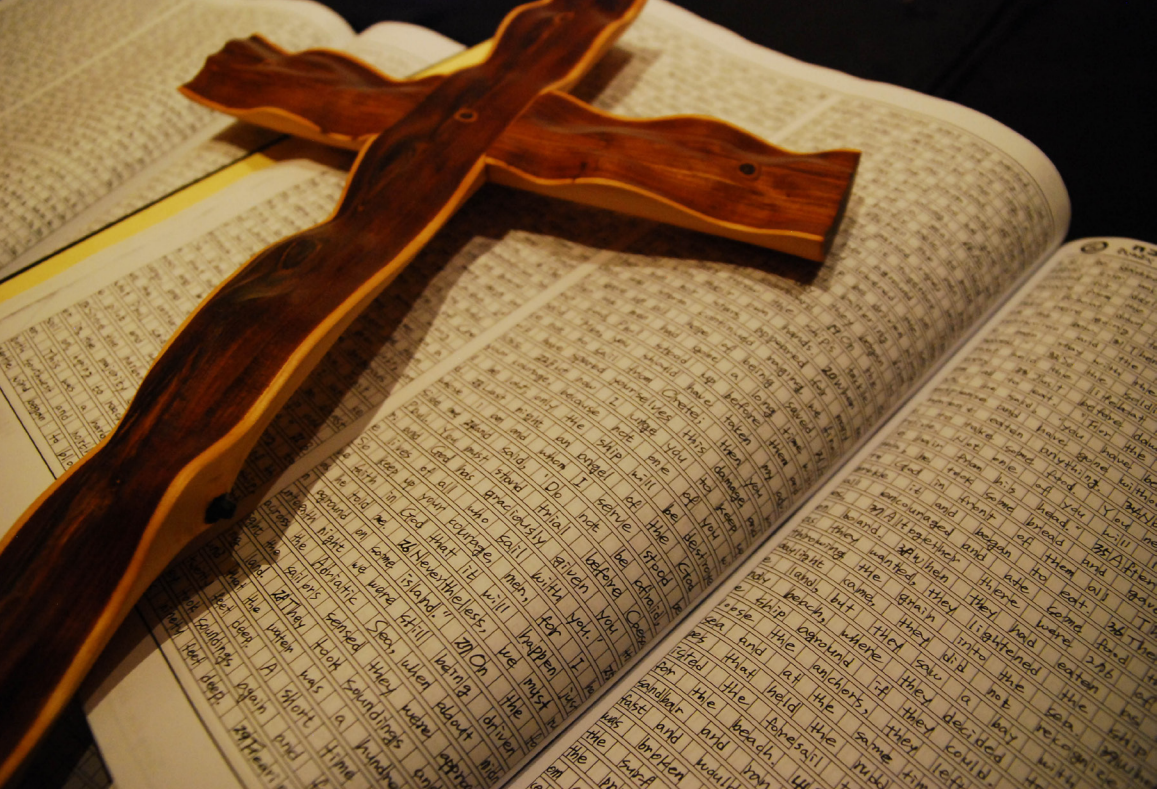


라톤”, 팀과 동아리, 친구가 서로 모여 장사하는 “먹거리 장터”, 평소에 감춰두었던 끼를 발휘하는 장기자랑 프로그램인 “소리창조”까지. 총 6개의 프로그램들이 한동대학교 학생들의 재미를 더해 주었다.

학부대향으로 펼쳐진 학부체육 대회는 이번 축제의 꽃이었다. 남학우들은 축구, 농구, 족구 경기를, 여학우들은 농구, 발 야구, 야생마(력비와 유사한 경기)경기를 한다. 각 학부마다 대표팀을 선정하여 4월 26일부터 예선전을 시작하여, 축제 둘째 날인 5월 6일에는 각 종목 별 결승전만을 치렀다. 치열한 결승전을 치른 뒤, 남자축구는 전산전자공학부, 남자농구와 여자야생마는 경영경제학부, 남자족구는 기계제어공학부, 여자농구는 국제어문학부, 여자발야구는 새내기들인 글로벌리더십학부가

각각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또한 각 우승팀원 중에서 가장 멋진 활약을 보여준 학생을 MVP(엠브이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축제가 매 학기마다 열리기는 하지만 이번 축제는 학부체육대회 중심의 운동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더 활기찬 축제가 되었다. 특히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들이 협력하여 이뤄낸 축제여서 한동공동체가 다시 한 번 연합의 장을 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한동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



말씀으로 하나된 한동영어 성경필사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
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
노라”

로마서 15:5-6

“May the God who gives endurance and encourage-
ment give you a spirit of unity among yourselves as you
follow Christ Jesus, So that with one heart and mouth you
may glorify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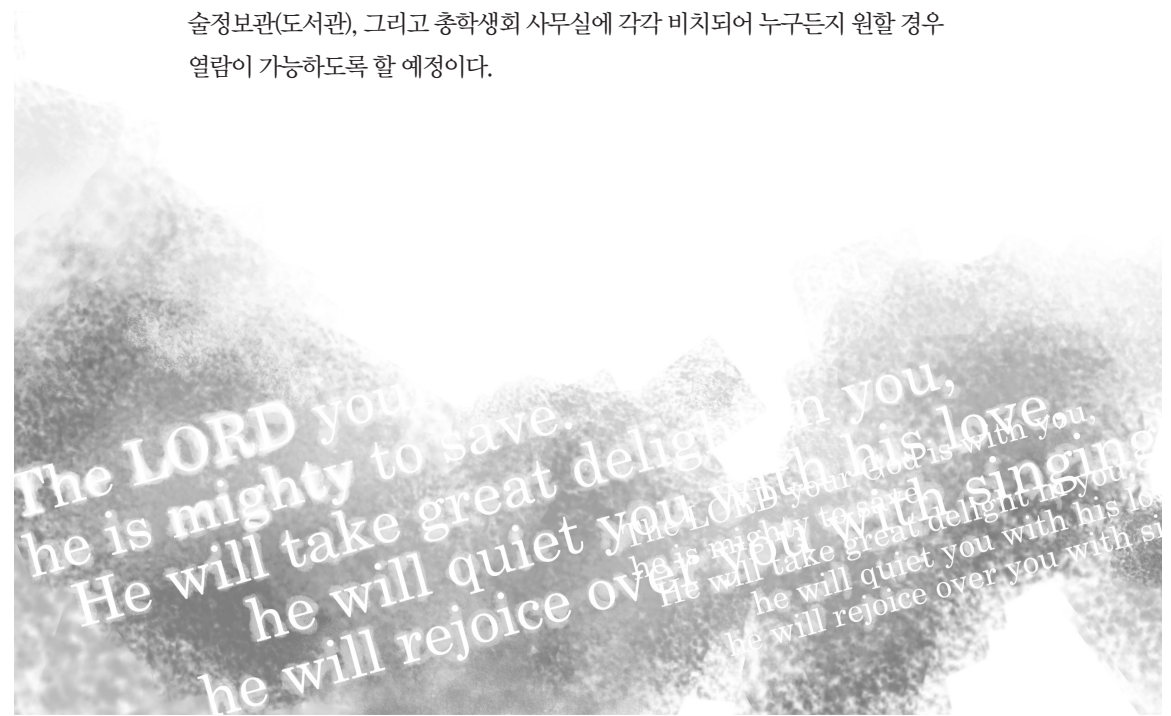
ROMANS 1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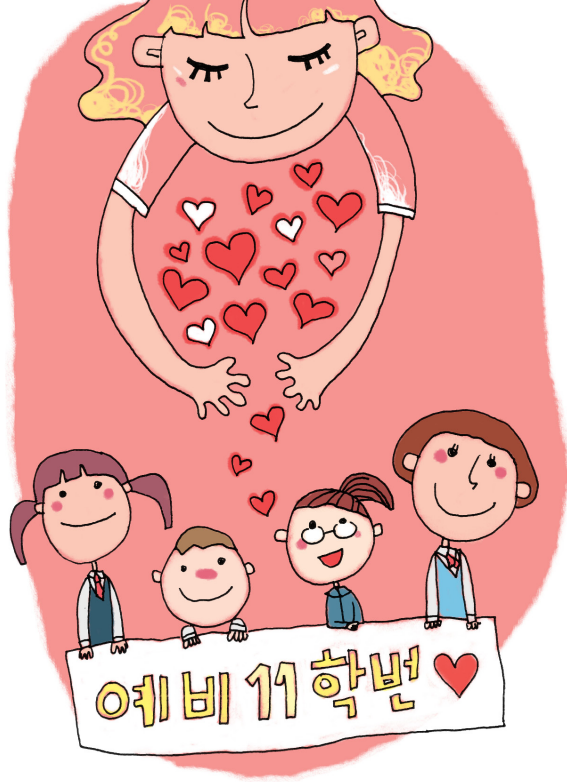
성경필사는 66권의 성경이 한동인들의 손을 통해 다시 쓰여지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동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각자 맡은 부분을 친필로 작성한 원고들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한동만의 성경책으로 엮어내는 것이다.

제15대 총학생회인 『총학의 정석』은 2008년 한글성경필사에 이어 2010년 봄학기, 영어성경필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한글성경필사에서는 대상이 재학생으로 제한되었지만 그림에도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재학생이 아닌 모든 한동인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이번 영어성경필사에는 김영길 총장님을 비롯 목사님, 교수님, 기숙사 간사님, 교직원 선생님, 그리고 재학생들을 포함 총 479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영어성경필사에는 한동구성원이 함께 말씀을 쓰며 목상이 회복되고, 로마서 15장 5-6절의 말씀처럼 ‘하나됨(Spirit of Unity)’을 체험하는 시간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히4:12)’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한동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회개하는 시간에 대한 소망도 담겨있다.

이렇듯 간절한 소망이 담겨 완성된 영어성경필사본은 하나의 원본과 세 권의 사본으로 만들어졌다. 원본은 총장실에 헌정되었고, 나머지 세 권은 교목실과 학술정보관(도서관), 그리고 총학생회 사무실에 각각 비치되어 누구든지 원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나님을 홍보하는 나누미, 여름방학 고등학교 홍보투어

“우리는 하나님을 홍보하고, 하나님은 한동대학교를 홍보하신다”

한동대학교 공식홍보단인 “나누미”의 슬로건(표어)이다. “나누미”는 한동대학교 기획홍보과에 소속된 단체이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학생자치단체로써, 대외적으로 한동대학교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슬로건

과 같이 홍보단 “나누미”는 한동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홍보하고, 홍보를 하기 위하여 세우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2010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나누미들은 일주일간의 합숙을 마친 뒤 7월 2일부터 16일까지, 약 15일간 서울, 경기, 천안, 청주, 광주, 전남, 울산 등 총 108개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전국여름홍보투어를 진행하였다. 이 홍보투어는 각 고등학교를 방문함으로써 입시에 지쳐 있는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한동대학교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래서 홍보가 진행되는 동안 저녁마다 예배를 통해 그분의 이끄심을 구하며, 한동인을 대표하는 간증자로서 홍보투어에 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신이 다른 고등학교에서 모인 학생들로 구성원을 이루고 있기에 각자 자신의 후배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었다. 이 의미 있는 행사는 2003년 여름부터 시작되어 매년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다함께 QTR로 아침을 연 투어 첫날, 나누미들은 5개의 팀으로 나뉘어 11개 고등학교와 250명의 학생들을 만나러 헤어졌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도 착했을 때, 그 설렘과 기대는 제가 한

동대학교를 입학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처음이라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었지만 선배, 동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함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여 교문 앞에서 기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홍보는 영상시청, 커리큘럼과 문화, 입시 소개, 소그룹 상담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연습하고 배웠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시간이었기에 더 보람차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홍보 컨셉인 ‘친근감’을 나타낼 수 있는 소그룹 상담은 홍보단원들이 각자 소규모의 그룹을 짜서 학생들과 친해지며 그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간접적으로나마 한동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 보니 아무런 꿈을 가질 여유도 없이 그저 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하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했듯 여기서 만난 고등학생들 역시 그러할 것이라 생각하니 나누미의 홍보가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욱더 홍보에 대한 사명감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투어 첫 날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느낀 기쁨과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의 형상과 한동대학교의 비전을 고등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과 더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홍보를 위해, 한동대학교 공식 홍보단 나누미는 오늘도 밤 늦게까지 연습을 합니다.

이 밖에도 “나누미”는 수시 / 정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함으로써 시험과 면접을 치르러 오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학기 중에는 한동대학교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한동대학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월례예배와 정기모임, 기도회를 통해 홍보단 “나누미”는 그 안에서의 예배 회복을 꿈꾸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스피치(한글/영어) 교육, 투어 시뮬레이션 교육, 나누미 활동 및 정신 교육 등을 통해 홍보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부터는 네이버에 한동대학교 블로그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도 시작하였다.

나누미는 한동대학교의 얼굴이다.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한동대학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홍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나누미의 열정은 어느 한동인들보다도 뜨겁고 값지다. 많은 이들의 기도후원 속에, 나누미들의 뜨거운 열정과 그 분을 향한 사모함이 하루하루 더 깊어지길 소망한다.



کتابخانه



우즈베키스탄 친구, 데이브론의 한동대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데이브론입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한동대학교가 저에게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인 Umid라는 곳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한동대학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다양한 수업, 복수 전공, 그리고 제3세계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등 한동대학교는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곳, 한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동에서 만난 친구들은 언제나 친절했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저를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팀 제도와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국제관 기숙사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을 통해 그들의 문화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 열리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도서관에서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은 제게 공부에 대한 의지와 동기를 유발하는데 전혀 부

족함이 없었습니다. 학업을 위해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게 된 제게 한동은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의 친구들이 한동대학교에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경험한 유학생으로 오게 될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들이 있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곳, 한국에 온 목적인 학업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인들과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하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빨리, 많이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에 앞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우리가 먼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과 한국에 대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동대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OICA 라는 기관은 외국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며,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유학생들이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불평하기보다 한동대학교 학생으로서 이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게 합니다.

한동대학교에 오게 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분명 모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얻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훗날, 이 곳에서 꿈을 향해 발전해가는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Davron Fayziyev



외국인 학생들의 리셉션리스트! 박애라 사모를 만나다

아침 6시 30분,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동대학교 학생식당 중 하나인 '맘스키친' (mom's kitchen)에는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식사 준비로 사용할 재료들이 옮겨지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손길들로 분주합니다. 주방 한 켠에는 산업디자인학부 조원철 교수님의 아내이자 맘스키친의 어머니인 박애라 사모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모님은 매일 아침 돈이 없거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빵집에 들러 빵을 구해 옵니다.

박애라 사모님이 굶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보게 된 것은

1년 반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에디오피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몽골 등 제3세계에서 온 학생들임을 알게 된 사모님은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빵집에서 그날 팔고 남은 빵을 얻게 되었고 이것은 배고픈 외국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그 때부터 지금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사모님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매일 빵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탈리아에서 온 외국인 학생 두 명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느냐며 사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은 이들에게 주방 설거지를 맡기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기 한동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돈이 없어서 이곳을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사모님께서서는 굶는 외국인 학생들이 유독 눈에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맘(Mom)이며 리셉션리스트라고 자부하십니다. 사모님은 외국인 학생들은 사정이 어떠한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 않지만 찾아온다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며 “기회가 되면 눈에 띄지 않는 우리나라 학생들까지 돕고 싶다”는 말씀과 함께 따뜻한 미소를 지어 주셨습니다.



탈북의 아픔을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고 싶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절 버리지 마세요. 북한으로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한 참 꿈이 많을 사춘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꿈은 실컷 먹는 것, 그리고 살아 남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남겨두고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서 탈출한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주님의 인도로 한동대학교에 새로운 터를 마련한 새터민 신모란(상담사회 08), 김현희(상담사회 08), 정은희(법 06) 학우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첫 인사와 함께 각자의 소개가 이어지던 중 기자는 김현희 학우에게 상담사회학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녀는 방긋 웃으며 “저부터 치료가 필요해서요” 라고 답해 그 자리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시련을 이겨내었던 그들이었기에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밝고 당당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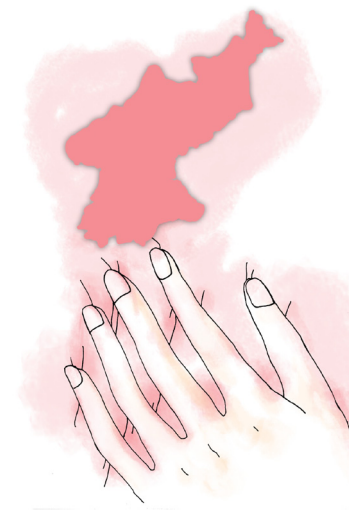
그들은 대화 속에서 한동대학교를 알게 된 것과 오기로 결심한 계기가 같대상자를 통해서였다고 입을 모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한동대학교가 세워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보고 밤새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현희 학우는 한동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로 탈북민영성수련회에서 만난 한동대학교 학생들의 학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자부심에 감동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동대학교행 기차에 올랐으나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는데 이곳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학점’이었습니다. 신모란 학우는 학점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쏟으며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며 새터민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속한 학생들은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영어와 컴퓨터 관련 강의가 새터민인 그들에게겐 벅찬 과정이었기에 학점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그들에게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수님과 주변 팀원들이 어려움을 함께 감당해주었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굳게 믿

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동에 관심이 많은 신모란 학우에게는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남겨져 있는 아이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고픈 꿈이 있으며, 김현희 학우에게는 한국에 오기까지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여성 탈북민을 돕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은 이곳 한동에서 계속 자랄 것이며, 꼭 이룰 것입니다.





강사웅 경영경제학부 교수님

한동의 아름다운 모습들

비가 그치고 온 세상이 맑고 깨끗해진 어느 날, 저는 한동의 교정에서 산책을 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푸른 하늘과 붉은 벽돌의 건물들,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늠름하게 서 있는 신록의 나무들과 비전 광장의 싱그러운 잔디밭이 멋진 조화를 이루어내고 청정한 대기에서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상쾌함과 평화로움이 묻어납니다.

코스모스 졸업을 하는 J군으로부터 반가운 카드를 한 장 받았습니다. 취업전선에서 여러 번 낙방한 후에 드디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산전자를 전공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다고 자기 소개를 하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졸업 후에 곧바로 개도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지만 취업을 강권하시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우선은 취업을 해서 경험을 쌓은 후에 조만간 개도국에 나가서 봉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그의 마음을 기뻐하시

고 그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생각되어 취업시험에서 여러 차례 낙방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재작년에 은행에 취업한 이후 한결같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K군에게서 기도편지가 왔습니다. 교회청년부에서 일주일간 대만으로 단기선교를 가는데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취업 후 여름마다 단기선교를 나가고 있는데 직장인에게서는 황금과도 같은 여름휴가를 주님의 복음전파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심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 보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한동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나무들이 자라면서 남송리 3번지는 점점 더 아름다워 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굴에 나타나듯이 캠퍼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한동인들이 더욱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아름다운 기운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건물 하나, 하늘의 구름 한 점에도 선명하게 깃들여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대와 포스텍 연합봉사캠프 함께하는 기쁨, 커져가는 행복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 한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스텍), 월송 초등학교, 평해 초등학교. 4개의 학교가 만났다. 20명 남짓의 대학생들과 그 주변을 뛰노는 어린 아이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월 4일부터 7일까지 약 3박 4일간 평해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돌아온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보자.

이전부터 한동대학교와 포스텍이 함께 진행해오던 농촌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방학에는 농촌이 한가로운 때일 뿐 아니라, 익숙지 않은 손길로 논일을 제대로 도와드리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봉사

활동'이라는 이름이 죄송한 마음이 들곤 했었다. 그러던 중 포스텍에서 시골 분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조금이나마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추진하게 되었다. 6월 초부터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방학 동안 지속적인 모임과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갔다.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였다.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와 특성을 살린 미술치료를 통한 서로의 성격과 유형 알아보기, 경영경제학부의 '미니마켓(작은 시장) 활동을 통한 경제관념 배우기', 언론정보문화학부의 '아이들의 활동 모습으로 만드는 CF'가 그것이다. 포스텍에서도 공과대학의 특성을 살린 '선풍기와 돛을 이용한 자동차 만들기'와 '플룻과 같은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 악기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포스텍 학생들과 함께 아이들을 만나러 평해로 향했다.

평해에 도착한 첫째 날, 우리는 먼저 포스텍 학생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과대학교와 종합대학교라는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향한 헌신과 사랑은 같았기에 톱니 바퀴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아낌없이 채울 수 있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월송 초등학교와 평해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 심리치료 시간에는 아이들이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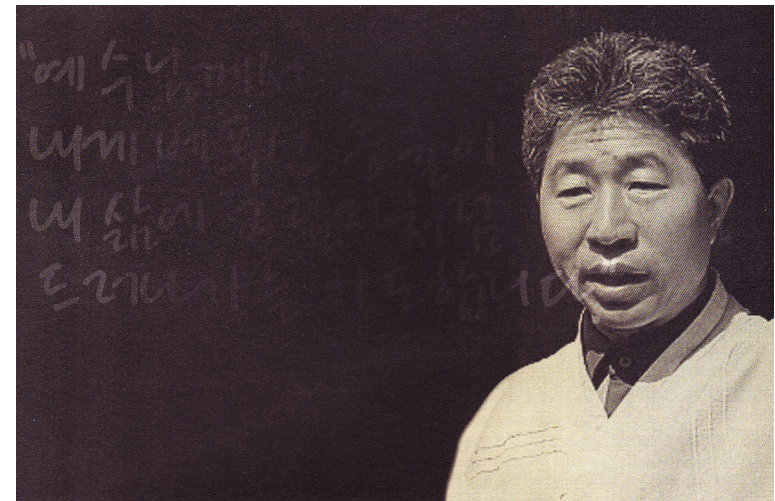




접 자신들의 손을 석고로 본을 뜨며 자신들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석고로 만든 손을 신기하게 쳐다보면서도 그 아래에는 뿔뿔하게 자신들의 꿈을 적어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한없이 예쁘기만 하였다. 또 직접 요리하고, 만든 음식들을 시장에서 팔고, 그 과정을 하나의 영상으로 담아내는 시간은 아이들이 특히 더 즐거워했던 시간들이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인터뷰를 직접 해보라고 하였더니, 리포터 역할의 아이도, 인터뷰를 하는 아이도 쑥스러워하며 이리 저리 숨는가 싶더니 곧 즐겁게 촬영하였다.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나갔다. 마지막 날, 헤어짐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시간들이 이 아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예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이 간절했다. 또한 이번 봉사캠프를 함께 한 포스텍 학생들과도 아낌없이 나누었고,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했기에 아이들과의 헤어짐만큼이나 아쉬웠던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교류를 통해 포스텍 학생들과의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 '포항'이라는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여하는 이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사랑을 전하는 봉사 캠프. 이 캠프가 또 하나의 아름다운 한동 문화로 자리 잡아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봉사, 예수님을 닮아 삶에서 공활을 행하는 것

글로벌리더십학부
김윤규 교수님

10여 년간 청소년 자유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하면서, 배워서 남 주는 삶,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글로벌리더십학부 김윤규 교수님을 만나 그의 삶과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현재 청소년 자유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 자유학교에 대한 소개와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자유학교는 일반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대안학교입니다. 포항지역에 나오는 연간 450명의 퇴학생들을 위해 한동의 교수님들과 지역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오랫동안 대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자유학교는 그 고민의 결과로 2001년 3월에

처음 포항문화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는 포항시 북구 동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5명의 학생들과 43명의 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업은 야학처럼 주로 저녁(6시~10시)에 진행되며, 수업은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교사로 지원해 학기마다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포항 안의 세계’라는 다문화 새댁들의 사랑방을 시작하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곳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자유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오르면서 우리는 ‘자유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회적인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포항에 거주하는 808명의 외국인 새댁들이 고국의 사람들과 편하게 모이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다문화 나눔터’입니다.

학생시절부터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사회봉사’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는지요?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참 어려웠어

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생계 때문에 배우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시만 해도 야학이 꽤 많았는데, 22살이었던 나는 30명의 학생들의 담임이 되면서 처음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 야학에서 계속 일하면서 당시 그 곳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살아오신 인생에서 ‘봉사’는 교수님의 어떤 의미 인가요?

나는 봉사가 어떤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Christian으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닮아 가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은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이 내 삶에 그림자처럼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교수님께서 해오신 활동 중에는 일어난 특별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 혹은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세요

TBC에서 <뮤지컬 자유학교>라는 라디오 뮤지컬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었던 경험을 담은 내용으로 직접 노래를 불러서 녹음도 했지요.

우리학교 학생들의 진짜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박원달PD의 제의에 선뜻 응했는데, 아이들도 우리도 참 좋았습니다. 이 뮤지컬을 기획한 박원달PD님은 후에 이 작품으로 상도 받는 등의 좋은 결과가 있기도 했지요. 저도 노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습을 해도 음을 못 맞추는 음치라서 결국 나레이션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인에게 하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질문 외에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우리 한동의 모든 이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긍휼을 통해 예수님이 들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년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는 끝없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긍휼을 입고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이티를 기억하며 '기적의 100원 프로젝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이라 하셨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온 방을 밝히고 전체 바닷속에 고작 3%를 차지하는 적은 소금으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갑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세상은 정화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동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100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아이티의 수도인 포르토프랭스로부터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진도 7.0의 강한 지진이 발생,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과 130억 달러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 전 세계에서는 아이티를 위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아이티를 향한 세계의 관심은 줄어들었고, 관심에서 벗어난 아이티를 향한 도움의 손길도 서서히 줄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 때 김중배 교수님팀 학생들이 아이티를 위한 '기적의 100원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아이티 모금 홍보물과 후원 상자를 만들어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매일 점심시간 동안 식당 퇴식구에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아이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루에 백 원으로 아이티를 기억하며 도움시다.” 시끌벅적한 식당에서 수줍고 떨리는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모금 운동을 하는 동안 계속 서서 구호를 외쳐야했기에 얼마 못 가서 금새 다리와 목이 아파왔고, 다른 때와 동일하게 어김없이 치뤄지는 시험과 퀴즈를 모금 운동으로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팀원들의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고 몸이 무거워질수록 후원 상자의 무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작은 희생과 관심은 모금액 2,183,260원이라는 값진 열매를 맺게 되었고, 이 모금액은 아이티를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곳과 캠페션에 전해졌습니다. 김중배 교수님팀의 팀장인 이기태 학생은 “모금을 하면서 한동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한동인 모두가 기억하고 아이티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며 모금 운동 후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차상위계층과 '손을 잡고' 정신장애인을 위해 '손을 펴고'

한동대 오석관(도서관)3층에 자리잡은 아늑한 카페에서 전해 오는 커피향기가 건너편 강의실까지 새어나옵니다. 한동 SIFE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및 취업을 위해 1년간 준비한 '손을 펴고' 프로젝트의 결실인 지역 내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클럽하우스 '브슬시넷가'와 함께 문을 열었던 카페 '히즈빈스(Hisbeens)'가 어느덧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사이프(SIFE, Students In Free Enterprise)는 기업활동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와 기업가를 양성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한동사이프를 만들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임정택 회장(경영경제 04)은 "전부터 벤처 창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북경대의 한 학생이 어느 경진대회에서 자신의 꿈은 '세상을

바꾸는 것'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회에 참여한 한국의 타 대학 학생에게서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과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인을 위한 창업... 그것을 꿈꾸는 그들에게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나를 위한 창업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창업을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라며 SIFE를 만든 계기를 밝혔습니다.

임정택 회장과 최경무(경영경제 04)매니저, 박새롬(상담심리사회복지 04)매니저 등 SIFE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학업과 함께 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법도 하지만 항상 웃으며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알기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함을 알기에 조금 힘든 것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한동 SIFE'가 더욱 향기 내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귀추를 주목해 봅니다.

용범이를 도와주세요.

용범이네 부모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는 분입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으로 말하나 전사님을 모시고 사시느라 3년간 교회에서 좀 더 먼 곳으로 이사하셨지만, 매 주 예배와 봉사를 쉬지 않으십니다.

작년 늦가을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용범이가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용범이는 학교도 못 가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두 부부님께서는 용범이 병간호를 하시면서도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봉사를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께서는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먼저 '잘 지내요?'라며 인사해 주십니다.

용범이는 항암치료 3단계 치료 중입니다.

지난 번 2달 치료 중 혈액검사로만 2,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네요.

혈액검사로만 수 천만원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운 형편속에 계십니다. 병원비와 병간호로 인한 재정손해 또한 크시거든요.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부탁을 해 보 일라는 교회 사모님의 간청과 제가 아는 한동대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도와주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동대 입학 홍보를 다니는 제가 한동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용범이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한동대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건강을 되찾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용범이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동대 학생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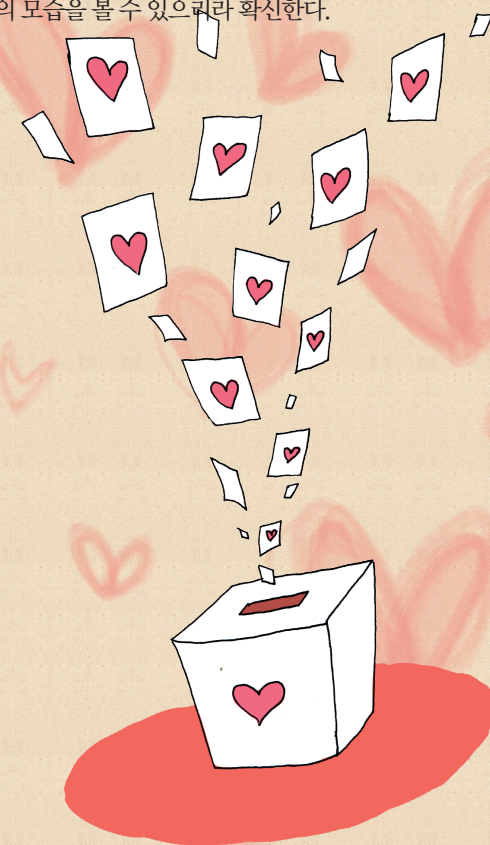
한동의 따뜻함이 용범이에게 전해지길..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느헤미야홀 1층, 현동홀 1층, 식당 퇴식구, 도서관 벽 등에 “용범이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포스터와 함께 하트 상자가 달려 있었다. 글씨가 빼곡히 적혀진 포스터. 그 포스터에는 백혈병에 걸린 용범이의 이야기가 적혀있었고, 헌혈증을 넣을 수 있도록 그 옆에 하트 상자를 달아놓은 것이다.

작년 가을, 갑작스레 백혈병 진단을 받은 초등학교 5학년 용범이. 넉넉지 않은 형편에 용범이를 치료하기 위해 가족들은 고군분투해야만 했다. 지난 혈액치료에만 약 2천여 만원이 들어갔고, 그 외에 들어가는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용범이 어머님께서 같은 교회를 섬기는 한동대학교 입학관리과에 근무하시는 김을숙 선생님께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도

움을 요청해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하였고, 선생님은 선뜻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한동대학교 내의 헌혈증 모음. 용범이를 위한 헌혈증 모음이 시작될 무렵, 정기적으로 행해졌던 헌혈 행사도 마침 진행이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용범이를 도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평소 가지고 있던 헌혈증 모두를 상자에 넣은 학우도 있고, 헌혈 행사를 통해 헌혈 후 받은 헌혈증을 바로 넣은 학우도 있었다. 작은 손길들이 하나 둘씩 용범이를 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이것이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용범이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겠지만 이 헌혈증에는 용범이가 빨리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는 학생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지난 6월 15일, 총학생회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여 458개의 헌혈증과 현금 57,830원이 들어 있는 하트상자를 김을숙 선생님 전달하였다. 헌혈증 한 장 한 장에 담긴 한동대학교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용범이와 용범이네 가족에게 용기를 주어 힘든 과정을 든든히 이겨내리라 믿으며 몇 년 뒤, 가족들의 소망인 한동대학교 대학생이 된 건강해진 용범이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010.2.1~2010.7.30 신규후원자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강명희	김민재	김정수	박성민	서재근	오인숙	이용기	임종기	차선영	황용운
강종환	김바다	김정태	박성희	성금숙	우구정	이용환	임준석	채경현	황원희
강한나	김백연	김정환	박수영	성낙신	우영숙	이용효	임채욱	최경옥	황인섭
강한선	김사라	김종민	박수은	성여진	위사은	이우철	임희자	최미희	황정환
강호영	김상수	김종선	박영숙	소경자	위성준	이윤종	장순중	최상인	Jessica Matchett
강 훈	김소영	김종희	박옥희	손겸	유미나	이은창	장욱이	최상희	김현중
고광수	김수홍	김준호	박용미	손신미	유은상	이임숙	장원빈	최선미	Lynn Kuitens
고선영	김숙현	김지승	박원국	손장익	유정희	이재훈	장재덕	최성경	맑은샘 광천교회
고영식	김순량	김지은	박원휴	손혜경	유혜경	이정숙	장정자	최성순	인천송월교회
고윤희	김순애	김진아	박은주	송도영	윤서호	이정자	장태욱	최영진	(주)씨앤엠코스메틱
곽원재	김순정	김춘자	박인택	송영문	윤수민	이종기	장한길	최우석	현대건설
구본현	김연이	김하늘	박정규	송영애	윤종숙	이종임	장행진	최윤영	무명 및 익명자 14명
권동진	김연희	김하은	박정순	신민옥	이경숙	이주연	장희진	최정자	
권말영	김영선	김한솔	박종환	신순오	이경자	이주희	전미순	최지아	
권보라	김영애	김현숙	박준옥	신정순	이규목	이준구	정봉룡	최현미	
권오균	김영옥	김현철	박지선	신 현	이기석	이준호	정수진	추금배	
권용욱	김영진	김형곤	박종렬	신현구	이다연	이진숙	정승용	하은진	
권준영	김예신	김혜숙	박태웅	신현빈	이돈선	이진희	정은영	하은희	
김예람	김예은	김호태	박필순	심형선	이미순	이충재	정종진	한대석	
김경민	김예인	김홍익	박현숙	안미숙	이미정	이태호	정태섭	한옥희	
김경수	김옥현	김효곤	박홍식	안예빈	이미홍	이해민	정현주	한혜란	
김경지	김용준	김효섭	방재용	안치국	이석기	이향미	정혜정	허 석	
김광석	김우영	김희자	방지영	안현수	이선희	이혜정	정효정	현원식	
김광희	김원일	나용태	방현자	양경철	이성균	이홍규	조강우	현은경	
김균호	김유희	남금식	배금숙	양다인	이성실	이희원	조덕희	현춘선	
김근배	김윤희	류청갑	배기돈	양성은	이수재	임난숙	조민제	홍선미	
김기현	김은미	류혜경	배지혜	양승재	이숙미	임래욱	조상일	홍선일	
김나영	김은영	문영남	백도민	양승희	이숙자	임미령	조선훈	홍세림	
김낙윤	김은화	문일남	백순걸	양진아	이숙현	임상규	조애영	홍정완	
김대균	김을숙	민경옥	백승찬	양창두	이숙희	임선애	조용호	홍정윤	
김대연	김이화	민성준	백정심	양한나	이승중	임성민	조은아	홍종석	
김동수	김인숙	박근혜	변법석	양환석	이예스더	임 솔	조형규	홍호연	
김미란	김재욱	박명희	서순희	양희숙	이영신	임영인	주홍욱	황규순	
김미영	김점석	박민지	서아영	어인수	이영화	임일규	지대윤	황영옥	
김미희	김정문	박선희	서유미	오세교	이왕우	임재석	진경숙	황영철	

후원안내

한동대학교는 개교 초기부터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동역자와 후원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가고 계십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긴 후원금은 World Christian Leader를 양성하는 초석이 되며 한동대학교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학생등록금에 대한 높은 의존율과 미미한 정부보조금으로는 대학 본연의 기능과 한동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 선교 비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모색하게 된 것이 발전기금입니다.

대학발전기금이 모여 장학금 확충, 교수채용, 학술연구 활동, 교육선교 사업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임으로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 즉 세계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갈대상자

한동대학교는 갈대상자와 같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가 후일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었듯이 새로운 소망 한동대학교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동대학교에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꿈, 그가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의 갈대 한 올 한 올처럼 기도와 후원의 한 손길 한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후원금액 : 1구좌 1,000원

팀워크(TimWork)

교육 선교 프로그램으로, Tim은 Timothy(디모데)의 줄임말로 TimWork는 '디모데 사역'이란 뜻입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나 최근 선교지의 어려움들을 통해 제약이 많은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의 유능한 인재들을 한동대에서 신앙은 물론 학문까지 체계적으로 공부시켜 본국에서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해당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준 바울, 개발도 상국과 미전도지역의 청년 리더양육을 위한 바울이 필요합니다.

후원금액 : 1구좌 10만원

보아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으로 확신한 기근이 있던 타향살이를 하게 된 나오미 앞에 곡식자루가 쏟아졌습니다. 그녀 앞에 선 보아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동대학교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보아스를 예비하시어 극복을 하시도록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한동의 국제화를 위한 제2의 도약 앞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부르고 계십니다.

후원금액 : 1구좌 100만원

갈대상자 후원가입

* 우편엽서를 통한 후원 가입

오른쪽 한동대학교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전화를 통한 후원가입

발전협력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통한 후원가입

<http://www.handong.edu> 후원참여 > 후원프로그램 > 갈대상자 인터넷 신청

변경사항 수정 및 종료하실 때

후원자님의 기타 변경 사항 및 여러사정으로 후원을 종료하셔야 될 경우 발전협력실로 전화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기부금 공제혜택

기부금은 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 으로 전액 공제혜택 받습니다.

기타 기탁방법 안내

현금 기탁뿐 아니라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소장품 등 기증에 관한 사항도 발전협력실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한동대학교 발전협력실

전화 : 054-260-1063~65, 팩스 : 054-260-1069,

전자우편 : papyrus@handong.edu

후원자님의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면 반송 우편료가 절약되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에 소중하게 쓰이게 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꿈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는 유능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탁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기초를 세운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 갈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동대학교는 바로 그런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2011학번 신입생이 될 예비 한동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안내

+ 수시모집

모집구분	수시 1차				수시 2차					
전형 유형	국외학생 (해외학생, 선교사자녀)	특성화 고교 출신자	대안 학교	추천 학생	자기 추천	어학 (영어) 특기자	지역 학생	사회 기여자 및 배려자	농어촌 (정원외)	기회균형 (정원외)
모집 인원	90	20	30	210	30	20	40	40	29	7
모집 단위	전학부 자율전공									
원서접수 (인터넷)	9. 8(수) - 9. 16(목) 17:00까지					11. 1(월) - 11. 8(월) 17:00까지				

+ 정시모집

모집구분	정시('나' 군)		정시('다' 군)
전형 유형	글로벌리더 장학생	전문계 고 출신자 (정원외)	일반학생 (주간)[정원조정]
모집 인원	10	10	250 수리"가" (120명) 수리"나" (130명) (*미충원인원이 이월될 수 있음)
모집 단위	전학부 자율전공		
원서접수 (인터넷)	12. 20(월) - 12. 23(목) 17:00까지		

* 자세한 내용은 입학홈페이지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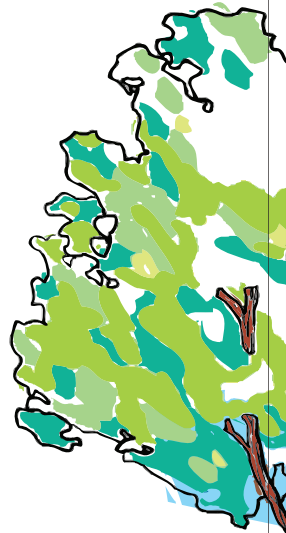
한동대학교 입학관리과

입학 상담전화: 054-260-1084~6, 054-260-1805

E-Mail: admissions@handong.edu

입학홈페이지: <http://admissions.handong.edu>

www.handong.edu



한동대학교 발전협력실

경북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번지

전화 : 054-260-1063

팩스 : 054-260-1069

E-mail : paypyrus@handong.edu

미국 H.I.F

HIF,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24428
South Vermont Avenue, Harbor City, CA 90710 USA

전화 : 310-530-4040

팩스 : 310-530-8400

E-mail : lahandong@hotmail.com

